

07 90.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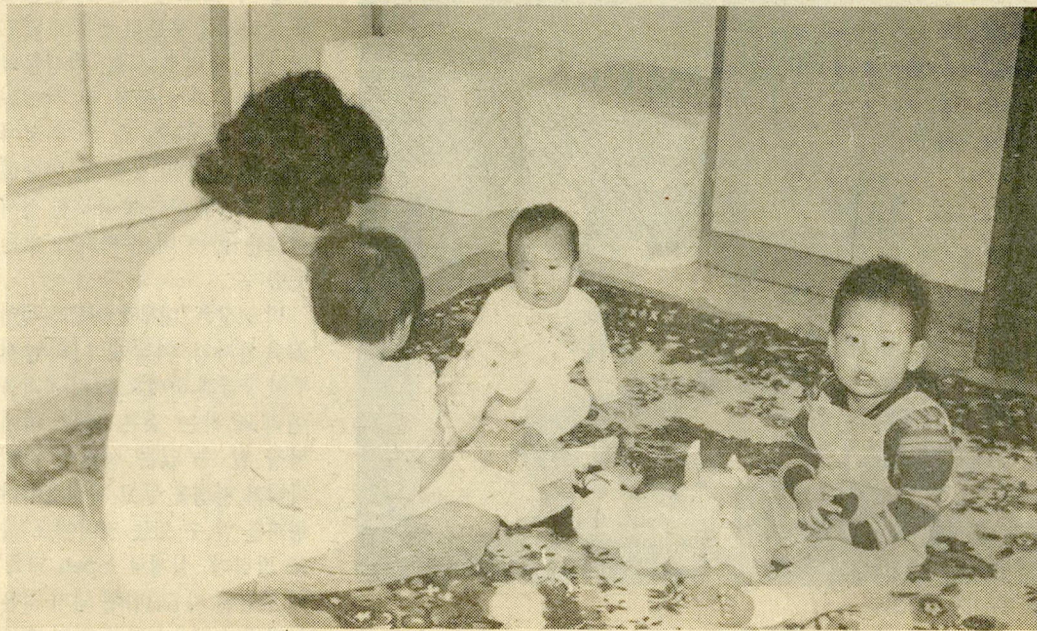
모자가정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

보사부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 전담기구 설치돼야

우리나라 모자가정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모자복지상담소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가정복지국이 89년 11월에 전국 모자가정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바람직한 모자복지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 3일에 개최한〈모자복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모자가정 중 90%가 빈곤을 경험하였고, 주된 이유가 아동양육비, 가족질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복지급여액의 현실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 기초강연을 한 유수현(서울신학대) 교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빈곤문제(63%) 다음으로 아동양육문제(31.1%)를 가정문제로 지적했고, 전북 모자세대수 4천1백79세대중 요보호는 79.3%로 절대다수가 빈곤상태라 모자가정의 경제문제 해결



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모자세대주의 직업은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이 과반수였고, 84.5%가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녀를 돌볼 사람없이 미취학 자녀를 자신이 돌보는 경우가 53.8%나 되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의논할 상대가 마땅치 않아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70%)이며, 속상한 일이나 화가 났을 때 혼자서 삭이거나 잠을 자는 등, 하소연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만한 대상이 없다는 점이 경제적 빈곤과 겹치는 어려움이라고 지적.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향상

과 함께 보호내용 및 급여수준의 현실화는 물론 복지대책 전담기구, 모자복지상담소 설치의무화를 제안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발표한 김성천(원광대) 교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만7천원(여성개발원, 88년)으로 도시가

구 최저생계비 30만6천원(보사부, 88년말 기준)에도 월등히 못미쳐 다수의 모자가정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지만 개인의 운명으로 돌리고 있고, 정부의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고 열악하여 최저생계비 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사회가 교통·산재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화로 인한 임금노동자와 핵가족 증가는 친족기능을 약화시켜 주소득자인 부친의 사고나 사망시 하루아침에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가족법, 취업기회, 임금 등에서의 남녀차별은 모자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모자가정을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장기적인 모자복지대책 수립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받을 수 있으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대여

기타 복지서비스 시행규정이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 의무규정으로의 개정을 제안했다.

〈모자가정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김인숙(정주한일신학교) 교수는 모자가족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모자가정수는 7만5천8백89가구로(0.7%) 그중 전북은 4천1백79가구(0.8%)인데 전북도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모자복지법에 대해 모른다가 56.6% 잘 안다는불과 4.1%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모자세대를 위한 복지법의 적극적 홍보와 아울러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자신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 상담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모자복지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전담기구 설치가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